

步兵의 對機甲戰能力

—尖端技術만이 最善의 解決策은 아니다—

金 忠 起 譯

西方側 產業界는 뛰어난 創意力을 가지고 매우 우수한 武器들을 생산해 왔다. 그러나 이들 武器의 성능은 매우 증가되었으나 아주 비싸고 복잡하다는 단점도 있다.

Uhle-Wettler 中將은 이를 비난하지는 않으면서 단순한 武器도 있어야 한다는 점과, 특히 各指揮官은 새로운 裝備에 대한 熱望중에서도 敵을 격퇴하여야 한다는 궁극의 目標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 ×

1945年 4月 海軍兵士 하나가 獨逸 北西部에 있는 참호속에 있었다. 그는 敵의 戰車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불안해 했다. 이들중 몇몇은 絶望感과 孤立感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들 모두는 Panzerfaust를 1個 혹은 2個씩 가지고 있었다. 이 武器는 사용후 버리는 對戰車로케이트이며 가격이 저렴하고 가벼워서 兵士가 願하는 만큼 지급될 수 있었다.

그후 Wehrmacht에서 이 武器, 혹은 이와 비슷한 武器로 敵의 戰車를 파괴한 兵士에 대해 勳章수여식이 있었으며, 이런 勳章이 10,000個 이상 수여됐다는 사실은 이 武器의 효과를 증명하여 주고 있다.

또한 이 武器는 戰車를 파괴하는것 외에 敵의 戰車공격으로 守勢에 몰린 友軍의 士氣를 높여줄 수 있다는 두가지 효과를 지니고 있다.

이후 40년에 걸쳐 技術의 진보가 이루어졌으며, 西方은 技術의 우위를 지켜왔다. 그러나 과연 오늘날의 우리軍隊가 1945年 당시의 軍隊보

다 더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前述한 사건이후 약 15년이 지난 후에도 그 海軍兵士는 獨逸 北西部 같은 地域에 있는 참호속에 있었다. 그는 그의 Panzergrenadier 中隊를 훈련시키고 있었으며, 이때도 불안해 했다.

이때 그의 部下中 하나가 “中隊長님, 진짜 敵의 戰車가 공격해 올때 내가 무언가 해낼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中隊長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의 指揮下에 있는 戰車小隊를 가르켰다.

그러자 그 兵士는 다시 “中隊長님, 내가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때 中隊長은 15年前 사용하였던 Panzerfaust에 대하여 얘기해 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武器는 개량되었으며, 再裝填이 가능하게된 發射器는 너무 비싸고 무거워서 약간의 兵士에게만 지급되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그는 銃榴彈을 가르킬 수 있었다.

이 武器는 사거리와 파괴력에 있어서 1945年 Panzerfaust에 비하여 뒤떨어지는, 썩 좋은 武器는 아니었다. 그래도 없는것 보다는 나았으며 모든 兵士에게 願하는만큼 줄 수도 있었다.

또 15년이 지난후 그는 같은 장소에서 과거에 그가 指揮했었던 Panzergrenadier 中隊를 훈련시키는 젊은 將校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때는 그에게 질문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했다. 왜냐하면 의문점들이 곧 解決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젊은 將校가 부하에게 “Panzerfaust 를 地下室이나 방에서 發射하지 말고 밖에 나와서 쏘라”고 가르치는 소리를 들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지난날의 Panzerfaust 를 회상했다.

그는 西方의 對戰車 步兵武器 중에서 폐쇄된 장소에서 사격이 가능한 武器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더욱 나쁜것은 로켓發射器가 극히 少數에게 지급된다는 것과 銃榴彈마저도 이제 배급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步兵은 1945年 당시의 步兵보다 더 취약하게 되었다. 많은 세월이 걸쳐 技術은 진보하였고 西方의 技術이 보다 더 우수하다고들 하지만 그들은 결국 戰車가 처음 등장하였던 1916年 Somme 地區 戰鬪당시의 步兵만큼이나 無氣力해진 것이다.



〈그림 1〉 Panzerfaust 를 발사하기 위하여는 밖에 나와야 한다. 과연 兵士가 이같은 위험을 무릅쓸 것인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살아남겠는가?

開發趨勢 ;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

어떻게 그런일이 생겼는가? 分明히 무언가 잘못되었었다. 原因을 찾아내기 위하여 우리의 戰車로 視線을 돌려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戰車는 西方技術의 백미로 간주되고 있으며, 모든 점에서 소聯의 戰車보다 우수한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西方의 戰車를 살펴보면 많은 費用을 들이지 않아도 쉽게 해결된 많은 문제점이 있음

을 알수 있다.

—많은 西方國家에서는 戰車長이 헬멧과 이어폰을 따로 장착하고 있다. 그리고 近接信管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의 戰車長의 머리는 단지 毛織 베레모로 보호되어 있다.

〈참고〉 이집트의 동굴벽화가 보여 주듯이 4,500 年前에 이미 헬멧은 유용할뿐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생각되어 졌었다.

〈참고〉 소聯의 戰車長은 이어폰이 내장된 헬멧을 쓰고 있다.

—앞쪽에서 바람이 불 경우 빗물이 Vision Block 을 흐리게하는데 平和時에나 멈춰서 이를 닦아낼 수 있다.

〈참고〉 1908年 Kaiser 의 兄弟인 普魯西亞의 Heinrich 王은 일찌기 와이퍼를 發明했었으며 이 발명품으로 특허권을 얻어냈었다.

〈참고〉 西方에서 가장 작은 車들도 와이퍼를 가지고 있다.

〈참고〉 소聯의 戰車도 와이퍼를 가지고 있다.

—戰車가 野地에서 기동할 때는 많은 먼지가 나는데 이는 運轉兵의 Vision Block 을 뒤덮는다. 위 경우와 마찬가지로 平和時에서나 이를 닦아낼 수 있다.

〈참고〉 위 참고를 보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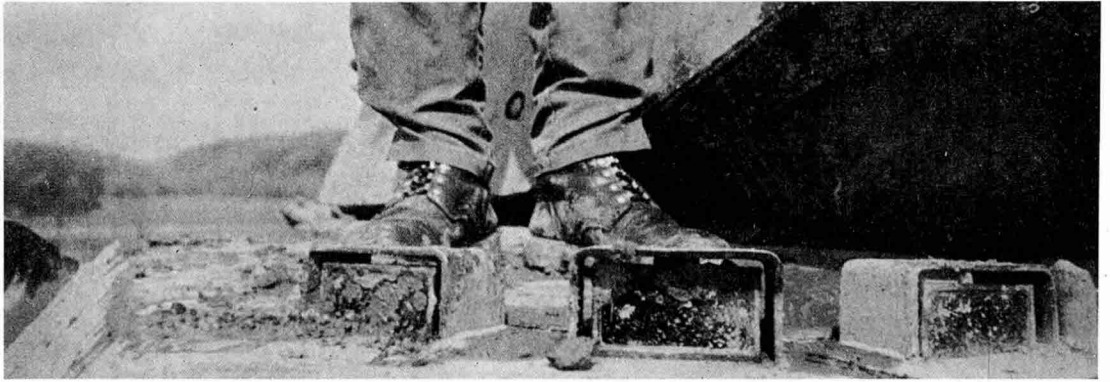
—어두운 밤에는 戰車나 APC 가 그들 옆에서 움직이는 戰車와의 상대위치를 지키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戰車長이 砲塔에 있을 경우 옆 戰車를 관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 소聯 戰車는 바로 옆의 동료에게 自身의 위치를 알려주는 ‘위치등’을 砲塔 측면에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西方戰車는 赤外線 探照燈을 砲塔전방에 달고 있으나 이 探照燈이나 相關 전선은 裝甲으로 보호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敵의 野砲攻擊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밤에는 관측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참고〉 소聯 戰車의 赤外線 探照燈은 장갑판으로 보호되어 있다.

—西方戰車는 일반적으로 단면높이나 부피가 크다. 따라서 단면높이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려



〈그림 2〉 진흙地域을 통과한 후의 Vision Block.

않은 길이나 담이 근처에 없는 한 우리의 戰車는 敵의 시각관측, 탐지기 및 사격에 最大限으로 노출된 상태로 敵을 공격할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참고〉 소聯 戰車중 많은 수가 도자날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방의 별도 장갑관 역할을 할뿐 아니라 戰車壕를 파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一夜間에는 특히 숲속에서는 앞차를 뒤따르는 것이 매우 어려울 때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先導車가 옆길로 돌았을 경우 뒤차는 미처 따라 돌지 못하고 황무지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車들도 두번째 車를 뒤따르게 된다.

〈참고〉 數百萬年 전에 생긴 산토끼, 사슴, 고라니 등의 광무늬가 왜 하얀지 생각해 보라.

〈참고〉 소聯 戰車の 砲塔 뒷면에는 작은 金屬상자안에 작은 燈이 들어있어 뒷쪽으로 點信號를 보낸다.

一夜間에는 大隊長이 연락하고자 하는 小隊長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침묵이 요구될 때는 더욱 그렇다.

〈참고〉 소聯의 경우는 좀 나은 편이다; 위 참조를 참조.

西方의 戰車を 살펴보고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는가? 우리의 戰車設計가 미숙한 것인가? 물론 아니다. Abrams, Leopard 뿐만 아니라 步兵戰鬪裝甲車輛(AIFV)인 Marder, Bradley 등 모두 아주 훌륭한 체계이다. 그러나 우리의 戰車에 대한 評價는 우리가 얼마나 尖端技術에 매

혹되어 있고 눈이 멀어있기까지 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우리는 비싸기만 하면 모든것을 구매해 왔다. 그러나 똑같이 유용하고도 값이 싼 品目은 輕視해 온 것이다. 간단하고 과거의 方法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점은 무시하고 해결하는 데에 高度의 技術이 필요한 문제에만 생각하고 노력을 집중시키지 않았는가? 우리는 尖端技術의 절정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구매했었다.

그러나 不幸히도 그 語義上 절정이란 그리 많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軍은 무엇보다도 먼저 많은 量을 요구한다. 바로 이점이 중요한 것이다.

步兵의 役割

위에서 挑出한 결론을 現代步兵의 對戰車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아마도 尖端技術에 대한 지식과 매력에 신중히 저항하면서 合理的인 상식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긴급한 일인가를 배웠을 것이다. 물론 步兵도 훌륭한 武器와 효과적인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들은 가격과 수에 制限을 받지 않는 武器보다는 덜 중요하다. 따라서 步兵에게는 기발한 機械를 설계하고 결국은 몇대밖에 못살 機械에 操作員을 붙이는 將校보다는 무슨일을 步兵에게 맡길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다음에 步兵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機械를 設計하는 將校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 步兵의 任務란 무엇인가? 먼저 攻擊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물론 우리의 첫

번째 공격수단은 戰車이다.

그러나 戰車는 敵의 戰車를 막는데 급급할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戰車가 잘 방호된 步兵과 交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므로 攻擊時에는 步兵과 함께 作戰해야 하는데 1次世界大戰에 이미 걸어서 움직이는 步兵으로 공격하는 것은 대개가 비싼 作戰이 되었으며 이 시기는 防禦部隊가 聯隊當 몇挺의 自動火器만 장비하고 있었던 때이다.

現代에 와서는 방어하는 敵部隊도 장갑화, 기계화되어 있으며 모든 兵士가 自動火器를 가지고 있다. 이런 敵을 機動裝備 없이 공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火網이 形成되는 오늘날의 戰場에서 이동하고자 하려면 毛織衣類보다는 防護力이 강해야 한다. 또 步兵의 몸에 장갑판을 붙일 수는 없으므로 古代戰車처럼 안에서 전투할 수 있는 裝甲車輛이 필요하다. 이 車輛은 이동중에 戰場을 살필 수 있고 소지하고 있는 모든 武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窓을 통한 觀測 및 銃眼口를 통한 사격만으로는 부여된 任務에 불충분하다. 즉 裝甲化步兵은 모든 步兵火器를 내놓고 싸울 수 있는 커다란 뚜껑이 달린 戰鬪車輛이 필요하다. 즉 현대판 Charioteer(고대전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防禦 및 협소地形戰鬪는 새로운 경우이다. 防禦部隊는 지역을 지키려 할 것이고, 이때 機械化部隊는 그의 기동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협소地形에서 機械化部隊는 단지 길을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고 地域을 가로질러 가는 능력은 非裝甲步兵보다 못하다.

따라서 협소地形에서의 효과적인 防禦를 위하여는 非裝甲步兵이 필요하다. 결국 오늘날에는 森林, 道市, 山岳地域의 방어를 위하여 機械化部隊를 투입하는 것은 대체로 좋은 해결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未來에는 바뀔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步兵任務의 분리, 즉 두가지 형태의 步兵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1) 攻擊作戰 및 開豁地에서의 전투용인 裝甲步兵; 이는 구성,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들며 협소地形에서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함.

2) 협소地形, 丘陵地帶에서의 방어용인 非裝甲步兵; 中部유럽에는 이런 地形이 많이 있으며 이들은 攻擊作戰이나 開豁地에서의 전투에는 적절하지 못하나 전술한 임무에는 費用對效果面에서 매우 적절하다.

對戰車 步兵武器

지금까지는 2가지 형태의 步兵이 필요함을 알아보았다. 이 2가지 형태의 步兵은 모두 對戰車武器가 필요하다. 裝甲步兵은 일반적으로 戰車와 합동으로 전투하게 된다.

그러나 AIFV는 그 안에 있는 兵士와 非裝甲 목표공격에 사용되는 機關銃 외에 더 많은 武器가 필요하다. AIFV가 이동하는 地域의 요소마다 敵의 戰車는 숨어 있을 것이고, 또 友軍戰車에 위급신호를 보낼 여유가 없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遭遇하게 될 것이므로 AIFV는 반드시 對戰車武器를 장비하여야 한다.

이 武器는 1,000m 내의 단거리 혹은 중거리용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開豁地에서 友軍戰車보다 앞장서서 전투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더 긴 射距離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무어라 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0에서 500m 사이의 短射距離 區間이 1,000m 이상의 地域보다 더 중요하다. 적어도 AIFV를 투입하는 典型的인 地形에서는 말이다. 이것이 Milan이 AIFV용 武器로 사용되었을 때 별 효용이 없는 이유이다.

2,000m, 3,000m 또는 그 이상의 距離에서는 어떠한가? AIFV는 兵士가 더 이상 달고 다닐 수 없는 바퀴달린 裝甲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리고 裝甲化步兵의 임무는 敵步兵과 교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그들의 任務를 완수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며 그 자체도 충분히 어려운 일인 것이다. 우리는 AIFV에게 主力戰車나 ATGW(대전차 유도무기)裝備車輛을 공격하라는 또 다른 임무를 부여해서는 안된다.

敵步兵과 싸우기 위하여 우리의 AIFV 搭乘兵士는 때때로 車輛에서 내려와야 할 때도 있을 것

이다. 이때 兵士들은 對戰車武器도 가지고 내리려 할 것이며, 이 對戰車武器는 車輛밖에서도 동일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이 步兵用 對戰車武器를 지금부터 알아 보기로 하자.

몇가지 基本的 疑問; 非裝甲步兵에 의한 협소地形에서의 防禦는 무시해도 좋은 부수적 문제인가? 또는 火器 및 彈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한 대규모 投資는 合理的인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광활한 平地(중·북부 유럽에 많은)에서는 오늘날에도 機械化部隊를 투입하는 것이 좋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不幸히 이런 地形에서도 戰車 및 裝甲步兵은 헬機, ATGW, 曲射砲彈과 같은 武器의 좋은 표적이 되며 이 武器들은 가장 좋은 戰車라도 공격하지 못하는 거리에 위치한다. 이들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는 假定아래서 軍은 戰車 및 AIFV를 위하여 많은 投資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효과성과 긴 사거리는 戰車戰術에 비추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拳銃射手와 小銃射手가 전투할 경우 平地에서 교전하고자 하는 拳銃射手는 거의 없을 것이고, 대부분은 수풀에서 敵을 공격하고자 할 것이다.

敵戰車 乘務員도 명칭하지는 않을 것이고 만일 그들이 拳銃射手와 같이 행동하려 든다면 密集地形에서의 防禦가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敵의 主力은 戰車地形이라고 불리우는 넓게 트인 地域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한다. 아마도 이 주장은 맞을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트인 地形에서 敵의 공격을 격퇴하였을 때 敵

이 다음엔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스스로 물어야 한다. 분명히 그들은 다른 어떤곳에서 再跳戰을 할 것이며, 이는 협소地形으로 再攻擊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假定을 세우던지 간에 우리는 협소地形에서의 防禦가 트인 平野에서의 防禦만큼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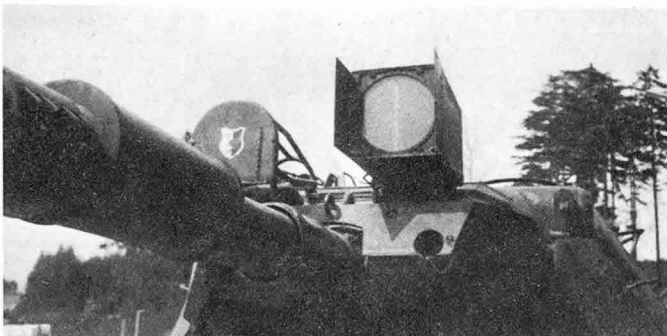
이 사실은 협소地形에 적절한 武器 및 裝備에 대한 대규모 投資를 정당화 시킨다. 어찌든 1940년에 있었던 近代史中 가장 놀랄만한 승리는 협소地形에서 機甲師團으로 수행한 공격에 의한 것이었다.

또 한가지 基本的 疑問; 非裝甲步兵에게 방어를 맡길 협소地形이 얼마나 되나? 분명히 國家마다 차이가 날 것이다. 中部유럽에서는 약 30%가 森林이고, 10% 정도가 마을, 都市, 産業施設로 되어 있다(전략가에게는 무시하지 못할만큼 많은 양이다). 이는 非裝甲步兵에 의한 협소地形防禦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며 이에 대한 投資가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재강조하는 것이다.

모두를 위한 武器

이제 우리는 다음 質問을 하여야 한다; 우리의 非裝甲步兵에게 필요한 對戰車武器는 어떤 것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몇명의 幸運兒들이 아닌 모든 兵士가 휴대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의 모든 敵은 戰車나 AIFV로 또는 그것들의 지원을 받으며 공격해 올 것이므로 兵士를 小銃으로만 武裝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이다. 이것은 칼만 가지고 호랑이를 잡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림 3〉 裝甲으로 보호되어 있지 않은 NATO軍 戰車의 赤外線 探照燈—現代戰場에서 얼마나 견딜 것인가?

가지다.

두번째로; 兵士가 운반할 수 있고, 참호에 넣을 수 있다면 그가 願하는 만큼 지급하여야 한다.

세째로; 地下室, 방을 포함하여 어느곳에서나 사격할 수 있어야 한다. 열린 장소에서만 사격이 가능한 武器는 都市地域防禦에는 적절치 못하며 이 요구조건이 射距離延長이나 표적효과의 증대보다 더욱 중요하다. 이런 점은 1945년부터 지금까지의 步兵對戰車武器開發趨勢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이 요구사항은 소聯의 最新戰車의 前防裝甲을 파괴하지 못하는 成形裝藥彈頭를 가지는 로켓을 지향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論爭거리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進술한 原則을 약화시킬 수 있나? 소聯의 戰車중 대부분은 최신형이 아니며 최신형이라 할지라도 成形裝藥彈頭에 약한 부분은 얼마든지 있다.

더구나 협소地形에서의 공격은 AIFV가 선수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술자들이 敵의 裝甲性能의 향상만큼 成形裝藥 效果의 개선을 언젠가는 이룩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赤外線 探知 또는 熱像裝備는 어떤가? 이 장비들은 매우 필요하다. 특히 敵도 이런 장비를 가지고 夜間觀測이 가능케된 이후에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武器는 모든 兵士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基本要求에 관심을 집중하여 보자. 舊式 Panzerfaust는 몇명의 兵士에게만 지급되도록 발전해 왔으며, 戰車設計者들은 尖端技術에 매혹되어 있다.

熱像裝備는 尖端의 장비이지만 우리의 기본요구는 만족시키지 못한다. 더욱이 우리가 論議하고 있는 武器는 단거리용이고 대부분의 경우 협소地形에서 사용하게 된다. 이럴때는 舊式 照明彈이 효과적이다.

지금 論議하고 있는 武器로 兵士를 무장시킬 경우 더 이상 아무도 무기력하지는 않게되며 對戰車武器를 발사하기 위하여 숨은 장소를 벗어나지 않아도 된다. 또 敵은 대단히 많은 對戰車武器에 의한 공격을 맞이하게 될것이다. 이 모든것이 現狀況을 개선할 것이나, 이것으로 충분

치는 않다. 우리는 또 하나의 다른 武器, 즉 사거리가 더 긴 武器가 필요하다.

中距離用 對戰車武器로 우리는 LAW와 효율적인 Carl Gustav를 가지고 있다. 中射距離에서는 夜間觀測能力이 더욱 요구되는데 이 거리에서는 照明彈이 표적을 충분히 밝혀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貫通力 또한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는 平地에서는 中射距離에서 교전하게 되고, 敵은 戰車を 앞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長距離用 對戰車武器와 對헬機武器는 어떤가? 지금은 非裝甲步兵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으므로 협소地形과 짧은 可視범위가 문제가 된다.

長距離用 武器가 요구되는 平野도 있기는 하지만 예외인 경우이다. 따라서 장거리용 武器가 있다면 그것이 필요한 部隊에 지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덧붙여, 아직 地雷에 대해서는 論議가 없었다. 이 武器는 구식이고 설치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價格이 저렴하고 사용하기에 쉬운, 兵士에게 아주 유용한 武器이다.

소聯의 戰車는 전진하면서 地雷를 무력화시키는 장비가 있으므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 즉 효과를 증대시키고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는 成形裝藥을 사용해야하고, 또 埋設數量을 줄이기 위하여는 반드시 밝혀야 起爆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 지나만 가도 起爆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地雷에 대한 論議를 더 발전시키는 것은 主題에서 멀어지는 것이므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현재 우리는 잘 보호된 武器와 裝備밖에 없다.

그러나 武器나 裝備보다 戰術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 戰術보다 더 중요한 것은 部隊의 특히 戰場에서 戰車와 싸우는 兵士의 사기이다. 마치 골리앗과 맞서는 다윗처럼.

참 고 문 헌

(NATO's Sixteen Nations, May-June 1984)